



alr

April 2019

목 차

금리	03
달러/원 환율	05
엔/원 환율	07
유로/원 환율	08
주요 국내경제 지표	09
주요구 통하 대워하 화요 추이	N9

★KEB 하나은행

www.kebhana.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 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se two facts might tempt an investor to hang in with by buying Rosneft's shares d and a fourth fact: these trade below book vatimes Rosneft's in sereserves (Exxones). About \$14bn is due this year, \$1 to year, \$2 to year, \$2 to year, \$3 to year, \$2 to year, \$3 to year, \$4 to year, \$

but it could come back laterer are financial constraints of ITV would cost £7.4bn at price and Nomura estimates the end of 2014 Liberty's net ll be a hefty 5 times earnings 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tion. But without a bigger liberty will be a watcher of ontent, rater than a ant in it

C

ba

Sa

Pa

be

E

sh

la

ec

pr

W

E

rofi Loools

g is ousiness in the US.
rill follars is spent each
p econdary education.
less of listed, for-profit,
ary schools is not so hot.
the class in this niche is
a Colleges, which is selling
ng nearly all its campuses
g sanctions from the
nent of Education.
epartment has been cracking
n for-profits following a 2012
sional review that found half

nts drop out and one-fifth









금 리

3월

동향

IMF의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와 금리인하 권고 속에 미국채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으로 인한 위험회피심리 확대되며 하락

초반 유로존 성장률 전망의 큰 폭 하향 속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확대되며 안전자산 선호 강화

- 3월 초, 미 경제지표 호조에 연동하여 상승 출발한 국고채금리는 이어 유로존 경기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회피 강화 속에 하락 전환
 - 월 초. 미 경제지표 호조 속 국채금리 상승에 국고채금리도 연동하며 상승 출발
 - 그러나 예상보다 완화적인 ECB 통화정책 결정 속 큰 폭 성장 전망률 하향 조정에 따른 세계경기 둔화 우려로 안전자산선호 심리 강화되며 하락전환

중반, MF의 국내 기준금리 인하 권고와 FOMC에 대한 관망세 속에 1.8% 전후 등락

- 3월 중반, 낮은 수준의 금리 레벨 부담에도 IMF의 금리인하 권고 영향으로 1.7%대 진입 후. 브렉시트 및 FOMC 등 대외재료 대기하며 등락
 - 월 중반, 1.8% 초반으로 낮아진 금리레벨 부담으로 큰 폭 하락은 제한. 그러나, IMF의 국내경제 추경과 금리인하 권고 영향으로 1.7%대 후반까 지 하락
 - 이후, 일시적 브렉시트 불확실성 해소 속에 3월 FOMC에 대한 통화완화적 기대가 확대되며 1.8% 회복하며 등락하는 모습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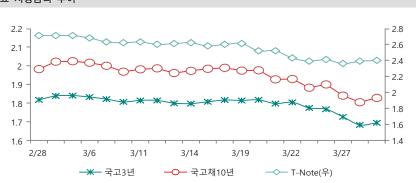
완화적 FOMC 이후,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며 세계경기 둔화 우려 확대

- 3월 후반, FOMC의 시장 예상보다 완화적인 정책 결정 이후, 미국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한 장단기 금리(10Y-3M) 스프레드 역전에 위험회피 강화
 - 월 후반, FOMC에서의 금리동결과 점도표 하향 조정 등 시장 예상보다 완화적 결과 이후, 미국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 발생
 - 여기에 독일 경제지표까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확대되며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 이에 국고채 금리는 1.6%대 후반까지 하락

3월 평균

국고채(3년): 1.79% 국고채(10년): 1.95% T-Note(10년): 2.56%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4월 전망

한은의 금융불균형 기조 완화에도 대외적 경기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하방리스크 강화 속에 소폭 하락추세 예상

평균 2019. 1Q		2019, 2Q ^F	2019, 3Q ^F	2019, 4Q ^F
국고채(3년,%) 1.80		1.75	1,70	1,70

- 미국 경제지표가 여전히 강건한 상황을 보이고 있음에도, 경기고점 인식 가능성에 따라 연준의 비둘기파적 정책 시사가 국내외 국채금리 주요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최근 미국 1분기 성장률 전망이 1.7%에서 2.1%로 상향되는 가운데 제조업 지표 등도 호조가 이어지며 주요국 대비 강건함을 이어가고 있음
 -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율 정체 등 여전히 엇갈린 모습을 나타내며 경기 고점인식이 커지는 상황. 이에 연준은 국채금리 변동성 확대 시점에 보다 완화적 정책 시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고채 금리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 국내 경제는 부동산 경기가 다소 안정화된 상황이나 전월에 이어 수출 경기 하락세 및 저물가 지속 등으로 경제전망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국면
 -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반도체 경기 급랭과 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국내 경기는 회복 동력이 좀처럼 복원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따라 한은 경제전망이 하향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시장에서의 금리인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측면이 국고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대내적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도 연내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국고채 금리 하단을 제한할 전망
 - 대외적 금리변동성 확대 속에 대내적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강화되며 국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 그러나 한은은 당분간 재정을 통한 경기 하방리스크 극복 기조 속에 대내외 금융불균형 여건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연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장 금리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 경제지표의 등락 속에 연준의 보다 도비 쉬한 스탠스 상황에서 금리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이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할 전망

국내 경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수출 경기 및 저물가 지속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 증대

4월 국고채(3년) 금리는 1.65%~1.80% 범위 예상

상승 요인	하락 요인
· 한은의 국내외 금융불균형 완화에 따른 금리동결 가능성	 연준의 미국 경기 둔화에 대응한 통회완화적 스탠스 강화 국내 경제 하방리스크 확대 속에 경제전망 하향 가능성









달러/원 환율

3월 동향 시장 예상보다 비둘기적이었던 FOMC 금리동결 후, 미 국채 수익률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 속 상승

월 초, 유로존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강화

- 월초, 미·중무역협상조율소식 및 연준 베이지북의 긍정적 경기평가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성장률 하향과 중국 수출경기 우려 등에 상승 출발
 - 3월 초,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합의안 도달 과정의 긍정적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미 장기국채 금리 상승 영향 등으로 달러 강세 동반되며 상승 출발
 - 이어, 연준 경기동향 발표내용이 통화완화적이었음에도 ECB의 유로존 성장률 큰 폭 하향조정한 점이 위험회피 심리를 확대하며 1,130원대 중반 까지 환율 상승

중반, FOMC에 대한 시장의 완화적 기대에도 북한 관련 비핵화 불확실성으로 1,130원 전후 등락

- 연준의장의 금리인상 유보적 스탠스와 FOMC에 대한 시장 완화적 기대 등이 원화강세를 이끌었으나, 북한 비핵화 리스크 재확산 속에 1,130원 전후 등락
 - 3월 중반, 미 통화정책에 대한 연준의장의 금리인상 유보적 스탠스 속에 3월 FOMC에 대한 시장의 통화 완화적 결정 기대감 등으로 원화강세 전환
 - 그러나 전월 북미회담 결렬 후, 북한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 소식이 전해지며 안전자산선호 심리를 키운 점이 환율 하락을 제한하며 1,130 원대 중심에서 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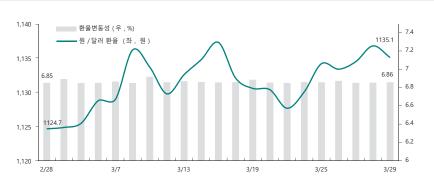
경기불확실성 확대 등이 환율상승 모멘텀으로 작용

- 3월 후반, FOMC에서 금리동결과 점도표 하향 조정에도 오히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며 안전자산선호 심리 확대 속에 환율은 1,135원 전후까지 상승
 - 3월 후반, FOMC에서 글로벌 경제둔화 및 미국 경기지표 등락을 고려하여 연 준이 점도표를 연내 0회로 하향하며 시장 예상보다 강한 완화적 스탠스 표명
 - 이러한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가 미국 경기 침체를 경고한다는 시장 반응으로 미국채 금리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 속 글로벌 경기에 대한 시장 불안 심리 가 중으로 환율은 전월보다 10.4원 상승한 1,135.1원으로 마갂

3월 달러/원 평균환율 : 1,131.9원

3월말 달러/원 환율 : 1,135.1원

달러/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



자료: 연합인포맥스, KEB하나은행

4월 저망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주요국 국채금리 변동성 확대 양상이 달러화의 점진적 강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평균	2019. 1Q	2019, 2Q ^F	2019, 3Q ^F	2019, 4Q ^F
달러/원 환율(원)	1,125.7	1,130	1,140	1,150

- 미국 및 유로존의 경기둔화 방어에도 시장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 국채금리 변동성 확대 등이 달러 강세를 견인할 전망
 - 3월 말 미 국채금리 장단기 스프레드(10Y-3M) 역전이 달러 강세를 견인한 이후, 되돌림 형국이나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상존
 - 이에 연준이 경기둔화 방어에 초점을 맞춰 완화적 정책을 제시함에 따라 일시적 달러 약세가 가능할 전망이나, 당분간 경기와 관련된 주요국 국채 금리 변동성이 다소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점이 달러강세를 지지할 전망
- 미·중 무역협상 및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측면도 달러 강세에 지지력을 더할 전망
 - 중국이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일부 경기지표가 호조를 보였으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해소에는 다소 미진. 이러한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도 타결까지 상당 기간 소요 예상에 따라 점진적 교역 악화 등이 세계 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상기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 속에 브렉 시트 이슈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일시적 달러 강세 요인이 될 전망
- 대내적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급상 배당 역송금 수요 증가 가능성 등이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치며 환율 소폭 상승 예상
 - 최근 국내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크게 부각되는 가운데 저물가 상황 지속 등의 요인이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여기에 수급상 배당 역송금 수요 증가도 환율 상승 요인이나,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금리동결 전망이 원화 약세를 제한하며 환율은 1,130~1,140원 범위 등락이 예상됨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속 금리변동성 확대가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미·중 무역협상의 장기화 가능성 속에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도 위험회피 심리를 소폭 강화시킬 전망

4월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130원 ~1,140원

상승 요인 하락 요인

- · 연준 완화적 스탠스 기대에도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가능성
- · 국내 경기 성장 모멘텀 약화에 따른 상대적 원화 약세
- · 배당역송금 수요의 계절적 요인
- · 연준 완화적 스탠스에 따른 한은 금리 동결 기조 가능성
- · 미·중 무역협상 진행과정 속에 위안화 강세요인









엔/원 환율

ECB의 추가 유동성 시행 발표와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시사 등 주요국 경기 3월 동향 부진에 기인한 완화적 통화정책 스탠스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확대되며 엔화 강세 시현

엔/원 환율 전월대비 19.3원 상승한 1,026.1 원에 마감

- 미국 및 유로존의 경기 둔화 우려 속 완화적 통화정책 발표에 안전자산선호 강화되며 엔/원 환율 전반적인 상승 흐름 시현
 - 월 초, 유로 경기 둔화 우려와 추가 유동성 공급 발표에 글로벌 안전자산선호 강화되며 엔/원 환율 상승
 - 월 중반, BOJ 금정위의 완화적 스탠스 재확인하였으나 금융시장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FOMC를 앞둔 경계감으로 제한적 변동 시현
 - 월 후반, 3월 FOMC에서 점도표상 연내 금리인상 전망을 2회에서 0회로 축소하며 사실상 금리인상 중단 시사. 완화적 통화정책 이면에 상존하는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에 주목하며 안전자산선호 강화, 엔/원 추가 상승.

4월 글로벌 안전자산서호 완화에 따른 엔화 약세 압력이 달러/엔 환율 상승 견인할 전망. 전망 에/원 환율은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국내외 투자심리 회복제한 영향으로 소폭 상승 예상

달러/엔 소폭 상승 전망

-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완화 영향이 달러/엔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전월 고조되었던 미국 및 유로존 경기둔화 우려 완화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약세 지속 예상과 그에 따른 달러 강세 전망이 달러/엔 환율 상승을 견인할 전망. 미일 무역협상에서의 자동차 관세 부과 우려 또한 환율 상승요인
 - 다만, 대외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전자산선호 재개될 가능성 상존하여 환율 상승을 제한할 전망

엔/원 환율 제한적 상 승 전망

- 엔/원 환율은 안전자산선호 완화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 전망에 상승 예상
 - 엔화 강세를 가져왔던 글로벌 안전자산선호는 진정되었으나 반도체 수출 부진과 외국인 배당 역송금 수요에 따른 원화 약세 지속 전망에 엔/원 환율은 제한적 상승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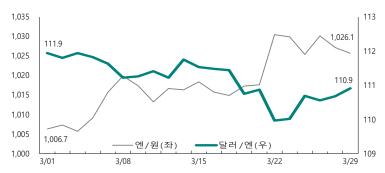
3월 달러/엔 평균화율 : 111 1엔

3월 엔/원 평균환율

4월 엔/원 예상 범위 : 1,005~1,040원

: 1,018,5원

엔/원 및 달러/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유로/원 환율

3월 동향 ECB 추가완화 정책 및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등 유로화 약세 요인 우위 속 월 중반 저가 매수 및 비둘기적이었던 FOMC에 상승전환 시도하였으나, 독일 등 유로존 주요국 경기 부진으로 약세 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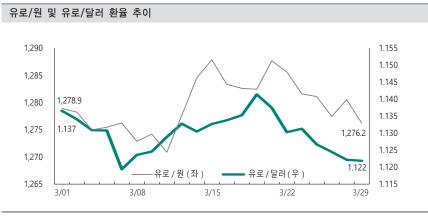
- 伊 정치 리스크 및 ECB 통화완화정책에 유로/원 환율 하락하였으나 안전 자산선호 약화에 따른 상승전환 후 유로존 경기부진 우려로 하락 마감
- 유로/원 환율 전월대비 2.7원 하락한 1,276.2원 에 마감
- 월 초, 伊 오성운동의 연합정부 이탈 리스크 및 ECB의 유동성 공급 재개 및 성장률 전망의 큰 폭 하향 조정 소식에 유로/원 하락 출발
- 월 중반, 유로화 저가 매수와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지연 전망이 안전자산 선호 약화시키며 유로/원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월 후반, 독일 제조업 PMI 부진에 유로/원 하락세 재개. FOMC 금리인상 중단과 미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따른 시장불안에 추가 하락

4월 전망 유로존 경기 둔화 지속 전망 속에 브렉시트 불확실성 부각되며 유로/달러 및 유로/원 하락할 전망. 다만, 유로화 저평가 인식으로 큰 폭 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유로/달러 환율 하락을 견인할 전망
- 유로/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가능성 상존
- 영국의 EU의회 선거 참여 여부(4/11)에 따라 노딜브렉시트와 브렉시트 장기연장이 결정될 예정. 이러한 불확실성 확대 속 미국 자동차 관세 이슈, 유로존 경기부진 지속 등이 유로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영국이 EU의회 선거 참여 결정시 브렉시트 우려 다소 진정되며 유로화 저가 매수세 재개되어 유로/달러 상승전환 시도 예상
- 유로존 다수의 리스크 요인에 따른 유로/원 환율 하락 우위 전망

유로/원 환율 하락 전망

- 브렉시트 불확실성 확대, 5월 EU의회 선거 리스크, 미국과의 무역마찰 등이 유로/원 환율 하락을 견인할 전망
- 다만, 국내 경기 부진 및 노딜브렉시트 제한적 가능성에 유로/원의 큰 폭 하락 가능성은 낮음



3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30달러

3월 유로/원 평균환율 : 1,279,5원

4월 유로/원 예상 범위 : 1,260원~1,280원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순환변동치, %

항 목		2018년			2019년		
	8 4	연간	3/4	4/4	1월	2월	3월
	전 산업 생산	1.4	-0.1 [0.5]	2.6 [-0.6]	0.8 [0.9]	-1.4 [-1.9]	
	제조업	1.2	-0.1 [0.6]	4.6 [-1.4]	0.0 [0.3]	-2.4 [2.6]	
	서비스업 생산	2,1	0.8 [0.3]	2.7 [0.4]	2,3 [1,1]	0.0 [-1.1]	
소	배판매액	4.3	3.8	3.0	4.1	-2.0	
설타	비투자	-3.8	-13.5	-6.0	-17.0	-26.9	
건건	건설기성액	-5.3	-9.7	-7.9	-10.9	-10.6	
경기	기선행지수	_	_	_	98.6	98.3	
실업	업률 (%)	3.8	3.8	3.4	4.5	4.7	
소년	비자물가 상승률	_	_	_	0.8 [-0.1]	0.5 [0.4]	0.4 [-0.2]
경성	상수지 (억달러)	_	_	_	27,723		
상품	국수지 (억달러)	_	-	_	56.095		
수출	출증감률(통관기준)	_	_	_	-5.9	-11.4	-8.2
수입	입증감률(통관기준)	_	_	_	-1.7	-12.6	-6.7
금리	미(국고채3년, 월평균)	_			1.807	1.799	1,788
KO	SPI (월말)	_			2,204.9	2,195.4	2,140.7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증권거래소

주요국 통화 대원화 환율 추이

단위: 원

	2018.10	2018.11	2018.12	2019.1	2019.2	2019.3
미국 USD	1,139.9	1,120.8	1,115.9	1,112.8	1,124.4	1,135.2
일본 JPY(100)	1,010.2	987.5	1,016.7	1,021.8	1,010.1	1,026.1
유로 EUR	1,291.1	1,275.8	1,270.1	1,277.1	1,275.9	1,276.2
영국 GBP	1,458.2	1,428.6	1,421.8	1,458.6	1,493.0	1,482.6
중국 CNH	163.4	161.5	162,4	165.7	167.9	168.7

주 : CNH는 서울외환시장 월말 종가 기준, 그 외 통화의 대원화 환율은 뉴욕시장 월말 종가 기준

자료 :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19.4월)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1 한 3월 무역수지(\$3,098M) -수출/수입(-11,1%/-12,6%, YoY) 중 3월 Caixin 제조업 PMI(49,9) 유 3월 Markit 제조업PMI(F) 독 3월 Markit 제조업PMI(F) 미 3월 Markit 제조업PMI 3월 ISM 제조업지수(54,2) 2월 건설지출(1,3% MoM)	2 홍RBA 호 RBA 기준금리(1,50%) 한 3월 CP(0,4% MoM/0,5% YoY) 유 2월 유로존 PPI (0,4% MoM, 3% YoY)	3 한 3월 외환보유고(\$\$404,67B) 일 3월 닛케이 PMI 종합/서비스 (50,7/52,3) 중 3월 Caixin 서비스PMI(51,1) 3월 Caixin 종합PMI(50,7) 유 3월 Markit 서비스/종합PMI[F] 독 3월 Markit 서비스/종합PMI[F] 미 3월 Markit 서비스/종합PMI[F] 미 3월 Markit 서비스/종합PMIF] 마 3월 Markit 서비스/종합PMIF]	소 한 2월 경상수지(\$2772,3M) 독 2월 공장수주(-2.6%, MoM)	5 일 2월 선행지수, 동행지수(P) 유 2월 소매판매 (1,3% MoM 2,2% YoY) 미 2월 소비자신용지수(\$17,049B) 3월 실업률(7,3%) Fed's Bostic Discusses Disruption and Op- portunity	6
7 중 3월 외환보유(\$3,090,18B)	8 일 2월 경상수지(¥600,4B) 3월 소비자기대지수(41,5) 미 2월 제조업수주(0,1%) 2월 내구재 주문(F)	9 일 3월 공작기계 수주[P] Clarida Speaks at Fed Listens Event in Min- neapolis FOMC 3월 의사록 중-EU정상회담	10 ECB 통화정책회의 일 3월 PP(0.8% Ye/0.20% MoM) 유 ECB 기준금리(0.00%) 미 3월 CP/Core(0.2%/0.1%, MoM) (1.5%/2.1%, YeY) 3월 FOMC 의사록 공개	11 중 3월 CPI/PPI(1,5%/0,1%, YeV) 독 3월 CPI(F) 미 3월 PPI/Core(0,1%/0,1%, MoM) (1,9%/2,5%, YeV)	한 3월 수출물가지수 (0,2% MoM,-2,4% YoY) 수입물가지수 (1,9% MoM,3,6% YoY) 중 3월 무역수지(\$4,12B) 수출/수입(-20,7%/-5,2% YoY) 유 2월 산업생산 (1,4% MoM, -1,1% YoY) 미 3월 수출/수입물가 (0,6%/0,6%, MoM) 4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쉬?	13
14	15 미 4월 제조업지수(3.7)	16 일 2월 3차산업지수(0.4% MoM) 유 2월 건설생산 (-1.4% MoM, -0.7% YoY) 미 3월 광공업생산(0.1%, MoM) 3월 설비가동률(78.2%)	17 일 3월 무역수지(¥339,0B) 3월 수출/수입 (-1,2%/-6,7%, YoY) 2월 광공업생산[F] 유 3월 CP(0,3% MoM, 1,5% YoY) 미 2월 도매재고(MoM) Fed's Bullard Speaks at Hyman Minsky Conference New York Fed's Logan Speaks at Money Marketeeers of New York 연준 Beige Book	18 韓금통위 한 BOK 기준금리(1,75%) 독 3월 PP(-0,1% MoM, 2,6% YoY) 미 4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전망 4월 Markit 종합, 제조업, 서비스PM(P)	19 한 3월 PP((-0,2%, YoY) 일 3월 CP(YoY) 미 3월 주택착공건수, 건축허가	20
21	22 일 2월 선행지수, 동행지수[F] 미 3월 기존 주택매매(MoM) 3월 시카고 연방 국기활동 지수	23 일 4월 닛케이 PM제조업[P] 유 4월 Markit 제조업/서비스/ 종합PM[P] 독 4월 Markit 제조업/서비스/ 종합PM[P] 미 4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3월 신규주택매매(MOM)	24 BOJ 통화정책회의(~25) 독 4월 IFO 기업환경지수	25 한 10 GDP(YoY) 3,1%[P] 일 BOJ 기준금리(-0,10%) 미 3월 내구재 주뮌[P] 중국 일대일로 포럼(~27)	26 한 4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1Q GDP 연간화(QoQ) 1Q GDP 물가지수 1Q 개인소비 4월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4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27
28	29 유 4월 경기기대지수, 소비자기대지수	30 美 FOMC (~5/11) 한 5월 기업경기실사 제조업비제조업 독 5월 Gik 소비자신뢰지수 미 4월 시카고 구매자협회 4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KEB Hana Market Monthly

